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산소

(아버이 날, 아내와 함께 찾은 어머니 산소앞에서) -김성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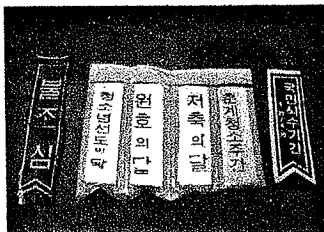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 산소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아버이 날, 무심코 찾았다  
꾸역꾸역 나오는 울음에  
아내 옆에 세워두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꺼억대며 울었습니다

웬일인지 깨져있는 화분조각  
하나씩 주워 드니  
애야 깨져 있으면 어머니 손 다친다 내 버려줘라  
아직도 호올로 지범의 외로움보다  
다 큰 아들 걱정이 어머니의 일이어서  
마음껏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 머리쯤 되는 흠자리 쓰다듬을 때  
왜 이리 눈물만 나고 점점 작아지는지요

목욕시켜 드리며 닦아드리던  
어머니의 사타구니  
내 머리 터치고 나온 고향이기에  
그 쫄되는 흠 자리 더듬어  
다시 닦아보며 꺼억대며 울었습니다

모두 윤기 나는 비석들인데  
어머니 자리만 아직도 나무 십자가만 덜렁  
누이가 보내주었던 비석 값  
여기저기 조금씩 쓰다 진작 어데 간지 없어  
다음에 돈 모아 근사하게 해 드릴께요 했던 게 벌써 언제  
애야 비석은 무슨  
그걸로 너희들 쓰고 싶은데 쓰라는 말씀 들려  
빈 잔디 쓰다듬으며 그냥 울었습니다



◀추억생각하기▶ '불조심' 명찰

봄이 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서 달  
아야 교문을 통과하던 "불조심"명찰.  
그 안에 '상기하자 6,25' '저축의 달'  
'원호의 달', 국민식수기간등 여러개가  
나란히 접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러나 한번도 다음에 사용해본 기억이  
안나는 것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찬찬  
히 보관 해 두는 습성이 없나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19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5월 11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꿀피하려는 달리기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  
큰때와는 달리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은 물론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행사였습니다. 운동회 시작을 알리  
는 소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은 아무쪼록 오늘 이행사가 탈없이 진행되기를 바랄  
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  
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간 예선을 치른 구기종목의 결승전을 시작으로 취업장별 각축전  
과 열띤 응원전이 벌어졌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어찌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기 저기서 응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이겨라!"  
"여보, 힘내요.. 힘내!"  
워니워니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 둘 출발선상에 모이던  
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흘려 주느라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골인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1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  
다.

엄마가 딸에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라  
하나님께 도움받고 사는 가정이  
가장 안전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의 조언을 자주 구해라  
부모는 유형형자이면서  
네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 어버이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6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2(어버이주일)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 학생부시랑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0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5:22-6: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됩니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34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결식자 봉사부.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4	김교섭	박병민	최옥기, 강순남	정관영, 정성호
11	김순자	박상옥	결식자봉사부	조용건, 최득수
18	김영길	박 실	현석호, 임병숙	최현철, 경덕현
25	김종건	박재양	선교부	권용일, 김경구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이사: 정성호, 박하림 집사. ☎416-0988  
☎ 287 Hobsonville Rd. West Harbour  
\*원성호 집사 부친, 재수술로 입원중, 기도부탁드립니다  
\*등록하셔서 갈보리가족이 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도세경, 이용관 성도. ☎ 275-0033 ☎ 7 Saybrook Pl. Mangere
-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청년들이 손수 만든 꽃에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2일(월) 오후 1시,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위해 여성교우들이 모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드러지기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교우들의 참여 바랍니다
- 8기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2): \*일시: 13일(화) 저녁 7:30, 교회
- 교회에 새 방식이 놓여졌습니다.
- 교환강단주일. 다음주일은 교환강단을 '은혜와 진리교회'와 갖습니다  
\*다음주일 설교: 김윤관 목사(은혜와진리교회)
- Tracking Club의 정기 Tracking (안내석의 안내문 참조)  
\*대상: 참여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하실수록 좋습니다  
\*일시: 17일(토) \*장소: Cascade Kauri Park에서 Waitakere Dam까지  
\*집결지: 교회 10:30 AM / Cascade Park 11:00  
\*문의: 김반석 집사(442-5555)
- 어버이주일 특별 문화행사  
\*Tea Time중에 영화 "집으로"를 상영합니다(상영시간 약 85분)  
450만 관객을 감동시킨 웅장한 외할머니 이야기.....자녀들과 함께 웃음과 감동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착한 시인들▶ 어머니 - 한하운-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똥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신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신  
말이 없는 어머니

부모님 세상 떠나면 용서받아야 할 일만 떠오른다더니 부모님 앞에선 끝없는 죄인.  
짜장면 먹고 싶다면 어머니께 짜파게티 끓여들이고, '짜장면'이란 얘기 아들에게서 나오자마자 Take Away해 준 기억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아도 막아도 살아나는 죄인 심정.  
문둥이 아들 한 평생 가슴에 담고 사셨을 시인의 어머니, 그 천형의 아들의 문둥병 갖고 가지 못해 제대로 눈 못 감고 아들에게서 눈 떠지 못하고 떠났을 테지요.